

〈특집〉 2012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총결산

한육우 사료산업을 뒤돌아보며...



박 응 렬
(株)지팜스 부장,
축우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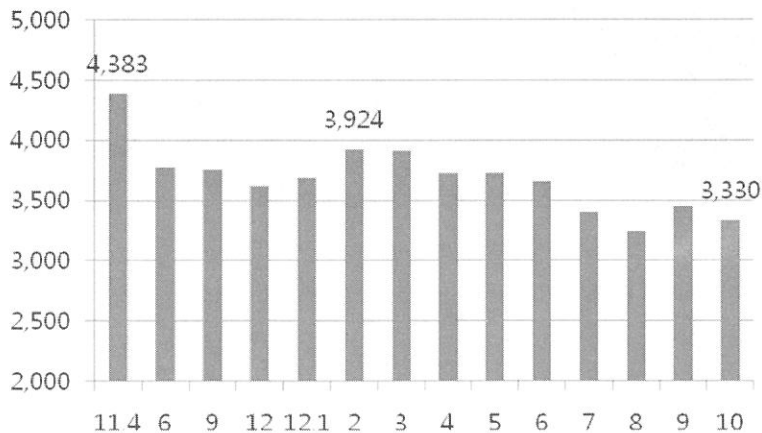
2012년은 비육우 양축가들에게는 2011년 구제역 파동에 이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2년 연속 고난의 한 해였다. 2012년 구정 전후 잠깐 상승한 한우의 산지가격은 이후 약세를 지속하면서 12월 현재까지도 손익

분기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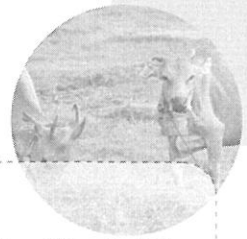
이러한 비육우 산지가격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우의 사육두수 증가에 있다 <그림1, 2>. 2002년 141만두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비육

〈그림 1〉 한우 산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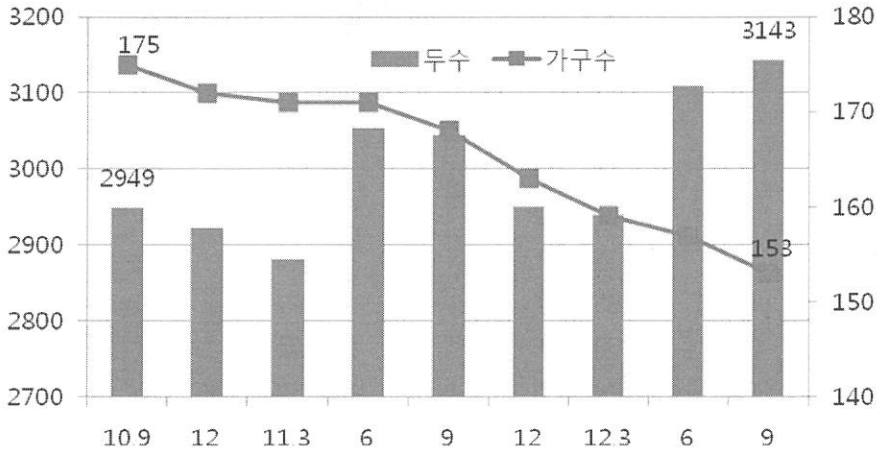
(천원/600kg)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그림 2> 한육우 사육두수 및 가구수 변화 (단위 : 천두, 천가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의 사육두수는 2012년 9월 314만두로 최고 두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한우산지 가격 하락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쇠고기 소비량의 감소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월 축산관측"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10월 쇠고기 소비가 전년대비 4.7% 감소하면서 한우의 산지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에 동반하여 동기간 쇠고기 수입량 또한 전년대비 14.9% 감소하였고, 2012년 8월 누계 냉동 수입육 재고가 전년동기 대비 15%나 증가하는 등 쇠고기 공급과잉에 따른 한우가격 추가하락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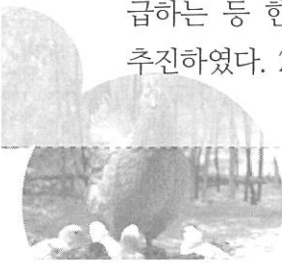
정부차원에서는 2012년 한우 사육두수 감소를 위해 "한우 암소 감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한우 암소의 도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2년 암소 감축 장려금 해당

암소만 10만두이며, 2013년까지 20만두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내의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1년 10월 "육량등급 판정기준"을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해 증가한 C등급 출현을 방지(등지방 두께 감소)를 위해 비육기간을 단축시키는 농가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한우의 조기출하로 한우의 출하체중 감소 및 사육두수 감소가 동반하였다.

2012년 역대 최고의 한육우의 사육두수 기록하며, 비육우 배합사료 생산량은 2012년 1월~10월까지 전년대비 6.8% 증가한 422만톤이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12월호). 이 중 비육용 사료는 11.5% 증가하였으나, 번식용 사료는 오히려 6.8% 감소하였다.

이러한 번식용 사료의 감소는 암소도태 증가에 따른 번식우의 비육용 사료의 사용 증가가 원인이다. 또한 동기간 정액 소비량



<표1> 국내 비육우의 적정 사육두수 계산 근거

연도	사육두수 (만두)	도축두수 (두)	국내산 소정육 소비량(톤)	두당정육량(kg)	자급율(%)
2001년	140	729,245	217,781	299	55
2002년	141	633,024	110,437	174	27
2003년	148	584,253	96,641	165	25
2004년	167	576,722	194,907	338	60
2005년	182	612,431	174,262	285	55
2006년	202	630,457	151,149	240	46
2007년	220	683,856	199,875	292	54
2008년	243	769,436	173,188	225	47
2009년	264	815,014	231,784	284	59
2010년	277	752,528	228,293	303	43

주: 도축두수는 한우, 육우, 젓소, 교잡우를 포함한 전체두수임
 자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도 12%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3년에 본격적인 사육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통상적으로 알려진 국내 비육우의 적정 사육두수는 240~270만두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숫자와 비교해보면 내년 또한 쇠고기의 공급과잉으로 한우의 산지 가격 하락 및 암소도태가 장기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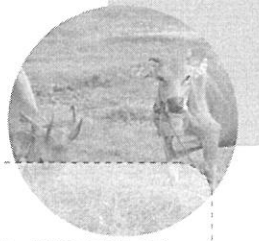
그러나 위의 국내 비육우의 적정 사육두수는 한우의 향후 산지가격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이므로 본고에서 한우의 적정 사육두수에 대해 저자의 계산방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검토 해보았다.

국내의 인구를 5,000만명,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을 9kg으로 볼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총 쇠고기 수요량은 45만톤이다. 현재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급율을 40%

로 계산하였을 경우, 국내산 쇠고기의 총 필요량은 정육기준으로 연간 18만톤이다. 소의 정육량은 소의 품종(한우, 육우, 교잡우, 젓소)과 성별(암, 수, 거세) 그리고 그 당시의 사육기간 등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나, 최근 10년간 평균 두당 정육량은 261kg이었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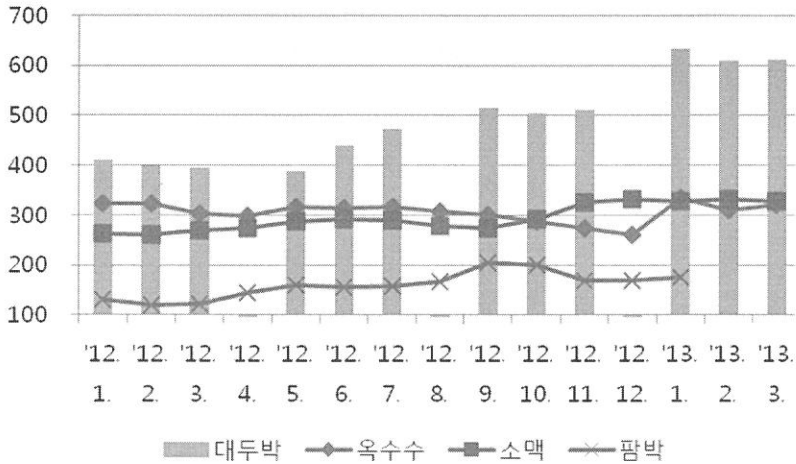
그리고 18만톤을 두당 정육량을 261kg로 나누면 연간 필요한 도축두수는 689,655두이다. 최근 10년간 전체 사육두수 중 연도별 도축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10년간의 평균 수치인 36%로 계산 할 경우, 연 689,655두의 도축에 필요한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191만두의 숫자가 나온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두당 정육량 이외에 1인당 쇠고기 소비량, 자급률 등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



<그림 3> 2012년 주요 곡물가격의 시세

(단위: CFR, US\$/MT)



(출처: 한국사료협회)

와 향후 쇠고기 수입증가를 고려하면 국내의 한육우의 적정 사육두수는 180~200만 두로 예상된다. 즉 본 계산에 따른 수치는 현재 알려진 적정사육두수 240~270만두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향후 비육우산업의 장기간의 침체가 예상된다.

2012년 비육우의 생산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사료비였다. 사료원료의 75%를 수입곡류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사료가격이 수입곡류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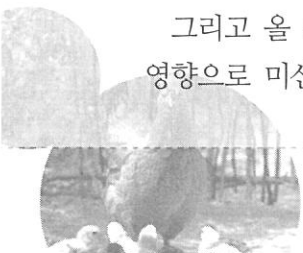
비육우사료의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곡류인 옥수수의 가격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옥수수의 바이오연료로의 사용증가와 중국의 사료용 옥수수 수입 증가로 인해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그리고 올 6월 이후 부터는 미국의 가뭄 영향으로 미산 옥수수의 수급이 더욱 악화

되면서, 남미산 및 우크라이나산 등의 옥수수의 수입이 다변화되어 전체적으로 평균 옥수수가격의 기복이 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그리고 현재까지 비육우용 사료의 압편 후레이크의 원료로 미산 옥수수의 사용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일부 회사에서는 미산 옥수수의 가격 상승 및 품질 불균일로 우크라이나산 혹은 남미산으로 산지를 전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3년에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옥수수의 대체 주요 탄수화물 공급원인 소맥의 가격은 2012년 1월 263\$/kg에서 12월에는 333\$/kg으로 27%나 상승하였다. 전반기에는 비육우사료의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옥수수를 부분 대체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하반기에는 오히려 옥수수 가격을 추월하며 탄수화물 공급원료의 곡물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다.



<표 2> 한우 소득 추정

(단위: 천원)

등급	평균 등급 출현율(%) ('12년 11월)	도매가격 (원/kg)	가격(A) (600kg)	2011년 경영비(B) (600kg)	소득 (A-B)
1++	10	16,470	5,919	4,554	1,365
1+	20.3	14,660	5,269		715
1	28.1	13,413	4,821		267
2	27.9	10,282	3,695		-859
3	13	7,819	2,810		-1,744

주: 도매가격은 2012년 11월 평균가격 적용, 경영비는 2011년 기준임(통계청)
환산 가격은 도매가격(지육가격)×지육율(0.599)×600을 적용함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두박은 옥수수로의 파종선호로 인한 작황면적 축소 그리고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인해 2012년 5월 389\$/kg에서 2013년 1월 634\$/kg으로 63%나 급상승하면서, 팜박 등의 단백질 공급원료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2012년 사료가격은 3월에 한차례 인상, 그리고 10~11월에 부분적 소폭 인상하면서 예년대비 사료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한우의 산지가격의 폭락으로 1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 한우의 경우는 소 판매대금에서 사료가격을 지불하고 나면 송아지 구입비가 부족하여, 빈 축사가 증가하는 등 비육우 사업의 본격적인 침체에 접어들었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육우 사료산업은 비육우 양축가의 수익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올해 한우의 도매(지육) 평균가격은 손익분기점인 지육 kg 12,671원을 밀도는 12,364원 전후를 유지하였다<표2>.

이러한 비육우 농장의 적자 경영환경 속

에서 양축가들은 생산비 부담으로 인해 2012년 또한 저가사료의 선호 혹은 고급육 생산으로 인한 판매가격 증대로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의 한우산지가격의 하락은 사육두수의 감소와 함께 서서히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의 고급육 생산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꾸준한 개량 및 사양관리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소 값 하락 시에는 등급간의 가격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즉 1+등급 위주의 고급육 생산기반 및 노하우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불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미간의 FTA체결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이 더욱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한우사업을 의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국내산 한우의 생고기 구이 문화"에 적합하며,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마블링 위주의 고급육 생산의 노력들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